교회 소식

예배

1. **수요예배**
   12월 3일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드려집니다.
2. **기관장 임명예배**
   일시: 12월 7일 주일 3부 예배 시 / 대성전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1. **당회**
   일시: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 / 장로회실
2. **권사회 정기예배**
   일시: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 / 권사회실
3. **선교회 및 기관 총회**
   선교회와 기관은 총회를 11월 30일(주일)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매주일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5. **유아유치부 전도 모임**
   일시: 매주일 오전 10시 45분 / 교회 옆 놀이터

안내

1. **성경대학 졸업식**
   일시: 11월 30일 주일 3부 예배 시 / 대성전
2. **아이비 복지센터 교회주차장 이용**
   일시: 12월 2일(화) 09:30~15:00
3. **분리수거**
   각 기관과 선교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1. **헵시바 워십선교단 단원모집**
   모임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 유아유치부실

후원 선교사 / 교회

<후원 선교사>
미얀마_배수현 선교사
네팔_김진만 선교사
레바논_김종현 선교사

<후원 교회>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온 / 라 / 인 / 헌 / 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감사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예배와 교회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교 회 학 교 주 일 예 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정 기 예 배

새벽예배(월, 위성)	오전 5시 30분	대성전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예배(위성, 강해)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유 튜 브 온 라 인 예 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교 / 회 / 주 / 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하 / 남 / 기 / 도 / 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홈 / 페 / 이 / 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11월 30일
통 3권<제 48호>

주 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예배 순서

주/일/예/배 *다같이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시 147:11~12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301장(통 460)
대표기도	1부	양하영 목사
	2부	김병환 장로
	3부	문귀순 명예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시 127:1~5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4부(위성)	이영훈 목사
	4부(청년)	조영태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윤재선 집사
	2부	전우청 안수집사
	3부	권일혁 안수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수/요/예/배/ 12월 3일 오전10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한혜원 권사	권일혁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망/회 12월 5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김병환 장로	윤재선 집사

예/배/위/원 12월 7일 성찬주일 | 12월 12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영자 목사	이현식 안수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김영진 장로	임경린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김병환 장로	정복래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망회	찬양팀	조종화 안수집사	임경린 안수집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시편 127편 1~5절)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감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스펄존 목사님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이 땅 위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소개할 시편 127편 역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국가나 가정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가정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국가는 안전을 지키는 성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소용없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2)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 '수고'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노동의 고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헛된 수고'는 오직 자기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노력과 염려로 가득한 삶은 결국 육체적, 정신적 피로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 중에도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2.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입니다. 이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감사할 때, 자녀에 대한 걱정 대신 기대와 평안이 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들은 강력한 영향력과 보호력을 의미하였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로 비유한 자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갖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때, 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며, 부모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안정과 보호와 명예를 나타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가정과 직업과 자녀와 국가 등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불안과 염려 가득한 '헛된 수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기쁨과 행복을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모든 열방으로 전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며 감사합시다. 이런 자들에게 시편 127편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